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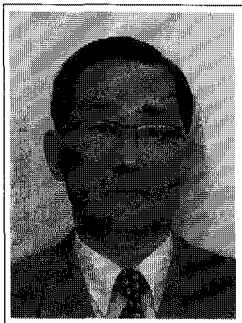


접대와 대접

- IAEA와 사찰대상국, 그리고 우리나라 -

서경 태

IAEA 핵물질보장조치 사찰관



얼마 전 한 건설업자가 검사들에게 향응을 베풀고 그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 놨다가 그 기록을 공개하면서 우리 사회의 '접대 문화'가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다.

한 지상파 방송의 시사 추적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심층 취재하였고 그 취재 과정에서 한 검사가 기자에게 협박과 막말을 하여 많은 사람을 분노케 하기도 하고, 허탈한 웃음을 짓게 하기도 하였다. 또 몇몇 검사들은 그것은 오랜 동안의 관행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하였다. 그나마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 듯한 검사들만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을 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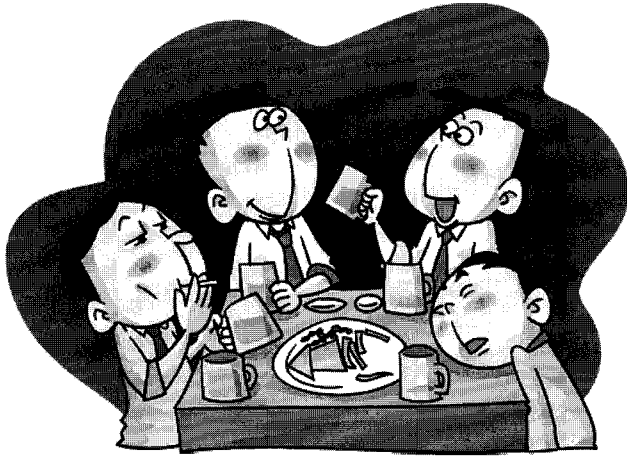
한동안 인터넷 상을 죽 끓듯이 시끌벅적하게 만들던 이 사건이 어느 순간 인터넷 상에서 사라져 버려 필자의 머리에서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던 차에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해 감시, 감독을 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어떤 부서가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사찰하여 문제를 일으켰다는 기사를 접하였고 그 후속 기사에서 이 부서가 외교부의 한국장실에서 양주를 백여 병이나 적발해 냈다는 기사를 읽다보니 다시금 이른바 검사와 스폰서 사건이 기억나게 되었다.

한국에서 접대가 보편화되어 있던 시절에 사회 생활을 했고, 현재 접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한국과 외국의 차이를 필자의 경험을 통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졸업
한국전력공사 근무(1984~1994)
IAEA 근무(1995~)

IAEA의 '손님 대접'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외국이라고 접대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접대라기보다는 '대접'(필자는 '대가없이 적은 비용으로 체면을 세워주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싶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는 하다. 행사나 회의의 규모에 따라 책정된 예산에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일인당 10불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이런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예산이 적다보니 딱 벌어지게 한상 거하게 차려 먹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대부분 '와인과 치즈' 라고 불리는 대접이 이루어지는데 와인 한 두 잔에 치즈와 크래커, 또는 과일 한 두 점 정도이다.

이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접대에도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눌 수 있다.

모든 선진국에서는 공식적인 업무를 하는데 있어 한국과 같은 접대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대통령이나 국왕 같은 국민 방문이라든가 장관급 등 고위 인사의 공식 방문에는 접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위치에서는 만찬이나 식사나 음료를 수반한 행사,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외교의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고, 그러한 모든 행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또한 접대 자체가 아무런 대가없이 이루어진다면 밥 한끼 먹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접대(대부분 관련된 사람들이 대가성 없이 이루어진 행사라고 강변하지만)가 이루어지는 곳은 별로 없다. 최소한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에서는 전혀 없다. 특히 술과 여자가 동반되어 아무런 대가없이 한 사람당 백불, 이백불을 심지어 천불 이상을 쓰는 접대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런 대가가 없이 수백불을 손쉽게 자기 주머니에서 내어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많은 유산을 받았거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유럽인이나 미국인의 관점에서는 유산을 많이 받았다거나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려고 하지 골치 아프게 회사에 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접대라기보다는 '대접'(필자는 '대가없이 적은 비용으로

체면을 세워주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싶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는 하다. 회원국이 참여하는 행사나 국제원자력기구가 주관하는 회의에는 행사비 또는 회의비가 책정되어 있다. 행사나 회의의 규모에 따라 책정된 예산에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일인당 10불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이런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예산이 적다보니 딱 벌어지게 한상 거하게 차려 먹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대부분 '와인과 치즈' 라고 불리는 대접이 이루어지는데 와인 한 두 잔에 치즈와 크래커, 또는 과일 한 두 점 정도이다. 얼굴이 벌게지도록 마실 수 있는 와인도 없을 뿐더러 이차, 삼차란 생각할 수도 없다.

또한 이러한 행사(대접)의 목적이 먹고 마시자는 것이 아니라 회의의 딱딱한 분위기를 잠시 벗어나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간에 친목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물론 얘기하다가 서로 의기가 투합하여 따로 약속을 정해 저녁을 먹든 술을 마시든 그것은 그 사람들 개인의 문제인 것이다.

사찰국마다 다른 '점심 대접 문화'

세계 여러 나라의 여러 곳으로 출장이 잦은 필자도 출장을 가면 여러 종류의 대접을 받는다. 모두가 점심이기는 하지만 대접이라는 것에도 차이가 많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선진국에 가면 이 사람들은 먹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조금만 더 하면



개발도상국에 있는 시설에서는 대부분 점심을 거른 채 사찰을 할 때가 많다. 구내식당이 있는 시설에서는 점심을 제공받을 수도 있지만,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사찰관이 배탈, 설사라도 날 까 두려워 시설 관계자들이 꺼려한다.

끝나는 일을 이 사람들은 점심 시간을 지키기 위해 일을 중간에 끝낸다. 이를테면 계속해서 일을 하면 12시 반쯤 끝낼 수 있는 일을 점심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반에 일을 일단 중지하여야 하고, 점심 식사 후에 1시 반이나 2시쯤에 일을 다시 시작하여 3시가 넘어서야 일을 끝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필자의 마음 속에는 "한끼 굶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일을 일찍 끝내고 말자 번거롭게 방호복에서 일 반웃으로 다시 갈아입게 만들고 정말 귀찮게 한다." 라는 생각이 가득 차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필자의 단순한 생각일 뿐이다. 작업 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휴식을 해야 하며,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일을 중단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다.

어쨌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일을 중단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긴다. 어떤 곳에서는 시설 근무자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사찰관들이 점심을 먹든지 굶든지 상관을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구내식당이 있는 곳에서도 구내식당에서 먹든지 밖에 나가서 먹든지 관여를 하지 않는다. 단지 점심 식사 후에 돌아올 시간을 정해 그때까지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곳은 드물다. 대부분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구내식당에서 본인이 원하는 음식을 선택한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스위스의

몇 시설은 시설 내에서는 돈을 쓸 수 없게 되어 있다. 아침에 출근해서 들어갈 때 옷을 갈아입으면 퇴근할 때까지 모든 것을 사원 카드로 해결한다. 구내식당이든 자판기든 간에 사용한 모든 비용이 사원카드 안에 내장된 칩에 저장되어 사용한 금액만큼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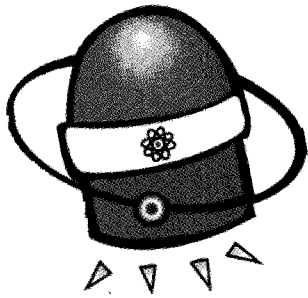
이런 시설에서는 필자와 같이 정식사원이 아닌 임시 출입자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시설에서는 점심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 가격이 한국 돈으로 오천원 정도이고 시설 밖의 물가와 비교해 볼 때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대접을 받는다. 그러나 일본에 있는 시설들은 자판기의 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자판기를 통해 임시 출입카드에 돈을 적립을 할 수가 있다. 적립된 돈을 다 못 썼을 때에는 나중에 자판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출장을 다녀보면 실제로 점심을 제공하는 시설이 여럿 있다. 하지만 그 가격이 바깥과 비교하면 엄청 싸기 때문에(대부분 시설들은 회사에서 구내식당에 보조를 하기 때문에 음식값이 저렴하다.) 제공하는 쪽이나 제공받는 쪽이나 큰 부담이 없다.

다른 경우도 있다. 대부분 핵시설은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알제리 같은 경우는 사하라 사막 안에 있다. 이런 곳에서는 돈이 있어도 점심을 먹을 곳이 없다. 이런 시설에서는 일을 일찍 끝내고 시설 밖으로 나온다 해도(실제로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경우도 있다.) 바깥에 아무 것도 없다. 이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시설에서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

개발도상국으로 가면 또 이야기가 틀려진다. 어떤 곳은 점심상을 아주 푸짐하게 차려놓은 곳도 있다. 그런데 점심에 참여한 인원이 십여명이 될 때도 있고 이십여 명이 될 때도 있다. 이른바 사찰관 접대 예산으로 관련 부서에서 회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곳은 드물고 개발도상국에 있는 시설에서는 대부분 점심을 거른 채 사찰을 할 때가 많다. 구내식당이 있는 시설에서는 점심을 제공받을 수도 있지만,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사찰관이 배탈, 설사라도 날 까 두려워 시설 관계자들이 꺼려한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접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장을 갈 때에는 출장비를 타 가지고 가는데, 출장비는 숙박비, 식비, 기타 경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출장지에서 점심이나 저녁 식사 대접을 받게 되면 꼭 신고를 하여 출장비 중 식비를 반납하게 되어 있다.

이런 곳에서는 일찍 사찰을 끝내고 밖으로 나온다 해도 위생 상태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음식 먹기가 꺼려진다. 이런 곳으로 출장을 갈 때면 음식을 한 보따리씩 준비해 가지고 가기도 한다.

IAEA 직원은 출장비에서 대접받은 식비를 제외해야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접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장을 갈 때에는 출장비를 타 가지고 가는데, 출장비는 숙박비, 식비, 기타 경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출장지에서 점심이나 저녁 식사 대접을 받게 되면 꼭 신고를 하여 출장비 중 식비를 반납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출장비 중 식비 부분이 실제로 대접을 받은 식비보다 많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출장을 가는 사람들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출장비에서 식비를 반납하여 손해를 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이 손해볼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점심 대접이 예상되는 곳으로 출장을 갈 때에는 항상 담배나 초콜릿, 와인같은 것들을 선물로 준비해 가지고 간다. 그래서 점심을 대접받고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출장비에서 구입하여 주는 것이다. 사실 규정상에서는 허용이 안되는 일이지만, 최소한의 방패막을 쳐 놓는 것이다. 만약 출장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시설에서 점심을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한 시설에서 있었던 일이다. 시설에서 점심을 잘 준비한 후 사찰관들을 점심에 초대하였는데, 사찰관뿐만 아니라 정부 직원, 시설의 본부에서 온

직원 등 꽤 많은 사람들이 점심을 함께 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찰관이 "이 점심을 꼭 먹어야 하나? 이것을 먹었을 때에는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출장비에서 식비를 공제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였다. 그 순간 식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썰렁해졌고, 그 말에 기분이 상한 정부 직원은 "귀 기구의 사찰관이 사찰 도중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라는 편지를 보냈다. 사실 사찰관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초대를 한 시설에서 볼 때에는 자신들을 무시한 언사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찰관은 사찰관대로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봐 내뱉은 말이었지만, 이, 삼십불의 돈 때문에 생긴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한 달에 백불이 있으면 온 가족이 잘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꽤 많고, 아프리카의 빈곤한 나라에서는 하루에 일불이면 어린아이 이, 삼십명이 입에 풀칠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 참으로 모든 것에 잘 맞추어서 살아가기 어려운 것 같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필자는 종종 우스갯소리로 "먹는 놈은 말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쓴다. 입안에 한가득 먹을 것을 넣고서 어떻게 말을 하겠는가? 입안에 먹을 것을 넣고 말을 하다보면 아깝게도 먹을 것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 이러니 어떻게 말을 하겠는가?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필자가 15년 이상을 비엔나에서 살며 수많은 나라들을 방문해 보았지만, 공짜 싫어하는 사람을 아직 못봤다. "왜 이것을 나에게 공짜로 주나?" 또는 "애가 왜 내 밥값을 내나?"라는 의문을 가지며 꺼려하는 사람은 봤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는 확신이 서면 거부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다.

그런데 공짜를 거부하는 것에 잘 훈련된 사람들은 아마도 미국의 공직자가 아닐까 싶다. 워낙 규정이 잘 되어 있고 그 규정에 너무나 익숙하여서 그런지, 필자가 맥주를 한 잔 사도 "왜 네가 나에게 맥주를 사느냐?"라고 따진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한잔 받아 마

시키고 다음 잔을 사면 될 터인데, 꼭 따진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같이 맥주 한잔 마실 생각도 사라지고 분위기가 팍팍해진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 하지만, 꼭 따지든지 아니면 꼭 같은 만큼 돌려주어야 속 시원해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공직 생활을 한 사람들인 것 같다.

접대든 대접이든 간에 마음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다. 밥 한끼를 먹어도 술 한잔을 마셔도 그것이 접대가 될 수도 있고 대접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큰 부자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대가없는 대접을 하면서 수백만원을 쓸 수 있겠는가? 아무리 접대가 아니라 우겨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듯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강력한 규정을 만들 수밖에 없다. 강력한 규정과 그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고 철저히 지키도록 훈련시키는 것만이 이러한 대가를 동반한 접대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접대 배태랑'?

필자가 한전에 입사하여 처음으로 근무한 곳이 영광 원자력 건설 현장이었다. 야간 작업과 돌관 작업이 거의 매일 실시되었고, 일요일도 2주일에 한 번꼴로 쉴 수 있었다. 겨울에도 온수와 난방이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등 숙소의 상황도 아주 열악하였던 때였다.

그래서 쉬는 일요일이면 자주 영광 읍내로 나가 목욕을 하였고, 가끔 광주 시내로 나가 목욕을 하였다. 1985년, 그 때는 대중사우나란 말이 없이 대부분 목욕탕이었고, 간혹 비싼 호텔에서만 사우나란 말이 쓰이던 시절이었다.

광주에서는 호텔하면 무등산 관광호텔이었다. 택시를 타고 "호텔이요," 하면 무등산 관광호텔로 가던 때였다. 그런데 광주 시내에 호텔이 하나 새로 생겼다. 호텔에 대중탕이 있었는데 새로 생긴 호텔이라 목욕탕이 아주 호화롭고 깨끗하다고 소문이 났다. 그래서 어느 일요일에 이 목욕탕으로 목욕을 하러 갔다. 목욕을 하던 중 겨울을 보니 머리가 땀수룩하게 자라 있었다. 이 목욕탕에 딸린 이발소가 있었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쌌다. 하지만 목욕 후에 다른하기도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강력한 규정을 만들 수밖에 없다. 강력한 규정과 그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고 철저히 지키도록 훈련시키는 것만이 이러한 대가를 동반한 접대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얼마나 좋기에 이렇게 비싼가 하는 호기심에 용기를 내어 들어갔다.

안에는 이발 의자가 세 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ㄷ자 형태로 세 개가 놓여 있었는데, 필자가 앉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람이 들어와 앉았다. 그런데 잠시 후 다른 사람이 따라 들어와 아양을 떨기 시작했다. "오메, 위저나. 우리 영감님, 위저 요리도 이쁘당가? 아따 곱기도 하여라. 우리 영감님, 참말로 곱당게요."하며 특유의 전라도 사투리로 오랫동안 아양을 떠는 것이었다.

물론 영감님이란 검사를 지칭한다는 것쯤은 익히 알고 있던 터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아양을 떠는가 하고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슬쩍 일어나 그쪽 의자를 보니 검사인 듯한 남자는 술냄새를 뿜뿜 풍기며 비몽사몽 졸고 있었고 뒤의 남자는 머리가 반쯤 벗겨진 반백의 중년남자였다. 그런데 졸고 있는 검사는 필자와 비슷한 이십대 중, 후반의 새파란 나이로 보였다.

당시 그 광경은 필자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겨 주었는데, 지난번 피디에게 막말을 퍼부은 검사의 경력을 보니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나이로 광주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만약 당시 젊은 검사가 이번에 막말을 한 검사라면, 그때부터 그 검사는 접대에 대해 훈련을 쌓기 시작했고, 접대를 받는 것에는 배태랑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